

이재용 회장, 3년만에 중국 방문 등 '광폭 행보'

삼성전기 텐진 사업장 직접 찾아 생산라인 살피고 임직원 간담회 용인 반도체 단지 총 300조 투자 올해 내 보조 로봇 'EX1' 공개 등 반도체·로봇 신사업 투자 확대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국내외서 광폭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회장 취임 후 국내외 사업장을 연이어 방문해 사업현황과 미래전략을 점검했다. 기존 사업은 물론 새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력 사업인 반도체를 강화하는 한편 로봇 등 신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섰다.

●삼성전기 텐진 사업장 방문

이 회장은 24일 중국 텐진의 삼성전기 사업장을 찾아 전자부품 생산 공장을 점검하고 텐진 지역에서 근무하는 삼성 계열사 임직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 회장이 중국 내 삼성 사업장을 찾은 것은 2020년 5월 중국 산시성 삼성전기 시안 반도체 사업장 방문 이후 약 3년만이다.

이 회장은 2021년 가동을 시작한 삼성전기 텐진 MLCC(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생산 라인을 살펴보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삼성전기 텐진 공장은 부산사업장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 IT·전장용 MLCC를 공급하는 주요 생산 거점 중 한 곳이다. 이 회장은 공장 방문에 앞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소속 텐진지역 주재원 및



24일 중국 텐진에 위치한 삼성전기 사업장을 방문하여 MLCC 생산 공장을 점검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제공 | 삼성전기

중국 법인장들을 만났다. 이 회장은 천민얼 텐진시 서기와의 만남도 가졌다.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양걸 삼성전기 중국전략협력실장(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 방문에 앞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을 위해 일본을 찾았던 이 회장은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도 동행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와 로봇 등 투자 확대

신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먼저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2042년까지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단지)를 위해

10년 동안 100조 원을 포함해 총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삼성전자는 '메모리 초격차'와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을 위한 화성·기흥·평택-용인의 삼각벨트를 완성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특화단지를 시스템반도체 등 최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허브로 키울 계획이다.

삼성엔 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 계열사의 충청과 경상, 호남 등에 위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향후 10년 동안 총 60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사업 육성에도 재검열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280억 원을 투자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 삼성전자는 1월 이 회사의 지분 10.3%를 인수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인수로 삼성전자의 지분율은 14.99%로 올랐다. 특히 풀옵선 계약까지 맺으면서 회사 인수 가능성도 열려났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다목적 로봇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올해를 '로봇 사업 본격화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반도체와 스마트팩, 생활가전을 잇는 회사의 미래 먹거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올해 안에 시니어 보조 로봇 'EX1'도 선보일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서울 중구 다동에 위치한 다동소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세이프메이트 범죄예방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는 KT 관계자들. 사진제공 | KT

KT, 공중화장실 안전 지키다

6000여 개소에 세이프메이트 범죄예방 솔루션

KT는 세이프메이트 범죄예방 솔루션으로 공원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했다고 26일 밝혔다. KT는 2016년 7월 서울 이태원 공중화장실을 시작으로 7년 동안 전국 210개 공공기관 등의 공중화장실 약 6000여 개소에 KT 세이프메이트 범죄예방 솔루션을 적용했다.

이 솔루션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비상벨을 누르는 것은 물론 긴급한 상황으로 누를 수 없을 때도 비명 소리와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등 구조요청 발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이나 현장 담당자 등이 신속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다.

KT 세이프메이트 범죄예방 솔루션은 2016년 제1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시상식에서 기업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KT는 범죄 예방을 위해 전 과정을 최적화했다. 오작동과 고장으로 방지되며 소위 '먹통벨'로 불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책임지고 있다. 또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에서 자가진단 및 관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장비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등 시스템 관제와 고객 응대를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종합 인프라도 구축했다.

김명근 기자

LG 'AI 해커톤' 성황리 진행...본선 진출자엔 계열사 채용 박람회

한달간 예선...104명 청년들 본선행 1박2일 경합후 최종 수상팀 선정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해커톤에 참가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LG

LG는 청년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25일과 26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LG AI 해커톤'을 열었다. LG는 2020년부터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AI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능력을 겨루는 대회인 AI 해커톤을 매년 2차례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LG 에이머스'와 AI 해커톤을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LG 에이머스는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AI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에이머스의 마지막 일정인 이번 AI 해커톤에는 33개 팀, 104명의 청년들이 참가했다. 2월 한 달 동안 495개 팀, 898명이 참가한 온라인 예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

오프라인 본선에 진출했다. 이번 AI 해커톤 주제는 '스마트 팩토리의 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품 품질 분

류 인공지능 모델 개발'이다. LG는 온라인 예선과 오프라인 본선 모두 LG의 스마트 팩토리에서 나온 실제 산업 현장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들이 실무 역량을 쌓으며 진로 선택과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AI 해커톤에 앞서 1월 한 달간 국내 최고 AI 전문가 7인의 핵심 이론 강의를 수강하며, 전통적인 통계 기반의 접근 방법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AI 기술, 해커톤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도메인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본선에 오른 청년들은 1박 2일 동안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예선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선하는 경합을 벌였다. LG는 대회 종료 후

제출된 코드를 심사해 최종 수상팀을 선정하고, 4월 초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LG는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최우수 수상(LG AI연구원장상) 등 최종 수상 3개 팀에 입사 지원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최종 수상팀을 포함해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장학금 및 상금 총 6000여 만 원을 수여한다.

LG는 본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LG AI연구원,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유플러스, LG CNS 등 8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도 병행했다. 채용 전문 컨설턴트의 1대1 맞춤형 상담 서비스와 함께 채용 시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LG AI 인재 풀 등록 기회가 주어졌다.

김명근 기자

SKT, 신규 기업 브랜딩 광고 캠페인 론칭

SK텔레콤은 신규 기업 브랜딩 광고 캠페인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를 론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유영상 사장이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AI to E verywhere' 비전을 구체화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이번 광고 캠페인을 통해 AI컴퍼니로서 고객의 일상을 어떻게 AI로 연결하는지 5대 영역 관련 소재들을 활용해 최대한 쉽게 보여줄 계획이다. 캠페인의 첫 번째 주자는 거대 언어 모델 기반 초개인화 AI에 이점 서비스인 '에이닷' 편이다. 이용자와의 오래 전 대화 내용을 기억해 이후 대화에 활용하는 '장기기억' 기술이나 음악,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까지 에이닷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과 이용자와 함께 성장하는 에이닷의 서비스들을 자연스럽게 소개한다. SK텔레콤은 에이닷 편에 이어 UAM(도심항공교통)편 등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들을 캠페인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편집 | 최재경 기자 hk7048@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27일 (월) 음력: 윤2월 6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맥을 연 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바라지 말라.	따스한 태양의 열로 땅 속의 씨앗이 싹이 터서 잘 자라 이득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어린 싹은 봄이랑 계절과 강렬한 생명력 그리고 풍부한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견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만사가 형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다소 소극적이 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무슨 일이나 엇갈리고 잘 들어 맞지가 않는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 같다. 당장은 힘들어도 차츰 나아지는 운세이나 자포자기에 빠져 협력자에게 배반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돼지띠와의 거래에서 신중해야 한다.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사들였던 화초가 비를 만나는 날이다.	허물이 없고 마음을 바르고 골게 가져야 한다.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을, 주위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어라.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된다.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서 협력을 구하라.	사방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맥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혼자서 일 처리를 하지 말라.	대체로 힘이 넘치는 날이다. 그러나 어떤 일의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는 웬지 우왕좌왕한다. 따라서 애매한 전망으로 일을 시작하다보면 중도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매사 신중히 결정하면 앞날은 밝아질 것이다.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다.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 관계도 원활하나 너무 무리한 행동은 자제하라.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수입이 늘어 기쁘다. 일이 신속히 성사될 수 있다.	절정으로부터 서서히 기울어지는 기운이다. 내부에 격정이나 갈등, 비밀 등이 내포되어 있는 때이다. 이런 때는 매사 초지일관의 자세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환경에 들뜨기 쉬운 날이라 자칫 환경에 휩쓸릴 수 있다.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지출이 많을 때이니 되도록이면 저축에 힘써라. 너무 밀고 나가면 상대가 추종하고 멈춘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생각하라.

오늘의 날씨			27일(월)
서울 0/20	인천 0/30	춘천 0/0	
2 14	3 11	-3 15	
강릉 0/0	대전 0/0	전주 0/0	
3 15	-1 16	0 15	
광주 0/0	대구 0/0	부산 0/0	
2 15	3 16	6 17	
창원 0/0	제주 20/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4 16	7 13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4039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신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가01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